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상인 형상과 그 의미*

-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탁원정**

— <차 례> —

1. 동아시아 상인 소설과 조선의 상인 소설
2. 조선후기 고소설의 상인 형상과 〈보은기우록〉
3. 〈보은기우록〉 속 상인 형상
4. 〈보은기우록〉 속 상인 형상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 〈보은기우록〉을 대상으로 그 상인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화폐 경제와 상업의 활성화라는 사회, 경제적 변동의 문학적 형상화를 확인하고 나아가 조선의 상인 소설로서 자리매김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보은기우록〉의 첫 번째 상인 형상은 ‘물락 양반의 푸줏간 운영’이다. 주인공 위지덕은 양반이지만 5대째 벼슬을 못하여 궁핍에 시달리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지 않고 하다가 푸줏간을 직접 운영하기까지 한다. 이는 후에 아들 위연청의 극심한 반대로 이웃 점방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두 번째 상인 형상은 ‘관원과 결탁한 대규모 고리대금업자’이다. 위연청의 간청에 의해 푸줏간의 직접 운영을 양보한 위지덕은 이후 소작농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부터 소항주(蘇杭州)의 점주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에 몰입한다. 이 고리대금업에 장지휘라는 관원이 결탁하여 ‘관위(官威)’로 빈민들의 고리대를 폭력적으로 환수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보은기우록〉 속 상인 형상의 첫 번째 의미는 ‘본격 상인 소설의 등장-상인 생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2-1--1659-001-3)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활상에 대한 포착과 이상적 상인상 모색'이다. 푸주업이나 고리대금업 화소를 통해 생활인으로서의 상인의 모습과 실제 상업 양상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과 더불어 상인의 윤리나 경영 지침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상인은 아니지만 아들 위연청에 의해 덕 있는 상인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인의 모습을 모색하는 측면도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부자간 새로운 갈등의 설정- 사(士)와 상(商)의 정체성 갈등'이다. 양반의 본분인 글읽기에 대해 지나친 혐오감을 내보이는 아버지와 여전히 사족임을 강조하는 아들 간의 정체성 갈등에 더하여, 상행위나 치부에 대해서는 사족의 정체성과는 거리 있는 인식을 하는 아들의 내적인 갈등까지 중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은기우록>은 18세기 중후반 이후 상업이나 상인에 주목한 작품들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흐름 속에서 창작되고 향유된 작품으로, 푸주업이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상인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되고 그 생활상이나 경영 방침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 상인 소설이라는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士)와 상(商)의 정체성 갈등을 통해 신분 갈등이라는 가문소설의 새로운 부자 갈등을 설정함으로써 가문주의를 표방하는, 사(士) 지향의 국문장편소설의 변화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같은 시기 동아시아 상인 소설과의 관계에서도 장편 양식 속에서 상인의 상행위와 삶이 전면화되는 상인 주인공 소설의 면모를 공유하면서도, 상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성애와의 밀착 양상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조선 상인 소설만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상인 형상, 푸줏간 운영, 대규모 고리대금업자, 본격 상인 소설, 사(士)와 상(商)의 정체성 갈등

1. 동아시아 상인 소설과 조선의 상인 소설

17-19세기의 중국의 명청시대와 한국의 조선후기, 일본의 에도시대는 공허 농경 중심의 경제 및 사회 제도와 사상 문화들이 조금씩 균열을 일

크고 상업 영역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이다. 중국은 강남지역과 동남해안 및 대운하를 중심으로 상업과 무역이 눈에 띄게 발달하기 시작했고, 조선은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교통의 요지를 중심으로 상업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에도·교토·오사카의 3대 거대도시가 형성되며 시장과 상업이 눈에 띄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학 방면에서도 상인이라는 새로운 인물군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을 포착한 신문 및 소설들이 다수 출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唐代부터 이미 상인의 생활을 제제로 한 작품들이 출현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인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한 것은 明代 중엽 이후이다. 조선에 유입된 4대기서 중 하나인 <金瓶梅>의 경우, 장편의 장회소설이면서 주인공인 서문경이 상인으로 설정되어, 당시 상인들의 상업활동이 매우 자세히 묘사되고 있으며, 상인의식이나 상인과 관리들과의 결탁, 당시 사회의 상인에 대한 인식도 드러나고 있다.¹⁾ 이후 馮夢龍(1575-1645)과 凌濛初(1580?-1644)의 三言二拍으로 통칭되는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과 『初刻拍案驚奇』·『二刻拍案驚奇』 등의 백화단편소설집에는 상인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던 상인이 새로운 상인윤리와 전통 유교 윤리의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²⁾ 청대에 이르러 다수의 白話 소설집 속에 한두 편 이상 상인들을 소재로 한 소설

1) 송진영, 『명청상고소설시론(明清商賈小說試論) - 《금병매(金瓶梅)》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36, 중국어문학회, 2011. 국내 학계와 달리, 중국 학계에서는 四大奇書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에 대해서도 상인 형상과 상업 활동, 경제 의식 등 상업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다.

2) 천수연, 『‘三言’에 나타난 商人形象 연구』, 수원대학교 중국어 교육 석사논문, 2006, 74~75쪽.

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志怪小說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蒲松齡(1640-1715)의 『聊齋志異』에는 총431編의 수록 작품 중 상인생활을 제재로 한 작품이 거의 50편에 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장편소설 <紅樓夢>은 상인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관원 건축 토목공사에 관계된 친인척과 소상인의 이권 다툼, 사재를 모으고 고리대금으로 불리는 며느리 왕희봉의 경제 활동, 황실 상인 출신인 설씨 가문의 전당포 운영 등 황실과 연관된 귀족 가문의 경제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업경제의 요소가 가문의 흥망성쇠, 이야기의 기승전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역시 장편인 <儒林外史>에서는 새롭게 부상한 염상(鹽商)을 중심으로 이들과 유가 지식인 집단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사상(士商) 계층의 문제를 밀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³⁾

일본의 경우 17-19세기, 즉 에도시대 자체가 상인 계급의 대두 시기이다. 에도시대 상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에도 초기에 막부(幕府)나 번(藩)의 권력과 결탁하여 이권을 지니고 지역을 넘나들며, 혹은 국가를 넘나들며 대규모 무역 및 유통업을 일삼거나 상권을 장악한 초기 호상(豪商)과 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부상한 신흥 상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전쟁이 빈번했던 중세와 달리 평화가 찾아온 에도시대에는 하급 무사들이 더 이상 녹봉을 받지 못하며 주군 없는 무사, 즉 낭인(浪人)이 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상인이 되어간다. 이들 계층을 포괄적으로 일반 도시 서민, 즉 조닌(町人)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상업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조닌의 삶을 다룬 문학 작품이 에도시대에 다수 등장하게 된다. 에도시대 통속소설의 효시라고 불리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1642-1693)의 단편 작품집 『닛폰에이타이구

3) 나선희, 「明清時期 鹽商의 자취 : 소설 『儒林外史』 속 鹽商」, 『중국어문학지』33, 중국어문학회, 2010, 281~294쪽.

라日本永代藏』은 이 시기 상인소설의 원류라고 할 수 있으며, 30편 중 18편이 성공담, 12편이 실패담으로, 주 내용은 부자가 되는 법, 즉 검약, 성실, 정직, 지혜, 신뢰 등 상업 윤리의 강조이다.⁴⁾ 사이카쿠를 뒤이은 에도 중기 소설가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1667-1736)는 소위 기질물(氣質物)라는 유형인물을 다룬 소설로서 인기를 얻는데, 상인 유형을 대상으로 부의 계승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본격적인 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를 이어 19세기에는 소위 닌조본(人情本)이라고 하는 상인 소설이 본격적인 출판물로서 대규모로 유통되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상인과 기녀의 연애담을 유형적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인물을 복수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로 흥행을 거둔 작품의 경우 속편이 계속 출판되어 그 인기를 지속해 나갔다.⁶⁾

이처럼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이 상고(商賈)소설이나 조닌모노(町人物)과 같이 상인 관련 소설을 유형화할 정도로 상인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⁷⁾

-
- 4) 고영란, 『『닛폰 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藏)』에 드러난 교혼의 이면(裏面)』, 『일본어문학』34,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201~220쪽.
- 5) 이들 본격 상인 소설에는 상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데다이(중간 관리직, 현대식으로 하면 매니저급)의 태도, 마음가짐, 그들을 대하는 주인집 사람들의 태도 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아킨도 가쇼쿠쿤(商人人家職訓)>, <세켄 데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氣質)>, 부자집 상인 아들, 딸들의 기행, 부자가 된 상인 1대 아버지의 기행을 골격적으로 다룬 <세켄 무스코 가타기(世間息子氣質)>, <세켄 무스메 가타기(世間娘氣質)>, <우키요 오야지 가타기(浮世親仁形氣)> 등이 있다. 고영란,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 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학보』제88호, 2011, 81~92쪽 참조.
- 6) 최태화, 『다메나가 슌스이(爲永春水)의 닌조본(人情本)연구 : 『슌쇼쿠우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와 『슌쇼쿠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7) 물론 산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18·9세기에 편찬된 야담집 속 상인 관련 작품들의 수는 상당하고, 이우성·임형택의 『李朝漢文短篇集』(1973; 1978)에 ‘富’와 ‘世態’,

주지하다시피 18세기 박지원의 <허생전>에 와서야 매점매석하는 상인의 형상이 전면화되고 박지원의 다른 전들에서도 다양한 상인 형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실제 상인 그 자체를 그리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민희는 17세기 이후로 상인이나 상업 행위, 또는 상거래 풍속을 담아낸 일련의 작품들이 현저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시기 고소설 작품을 ‘상업소설’ 혹은 ‘상인소설’이라 부를 만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을 면밀하게 짚은 후 <조신선전>을 상인소설로, <왕경통전>·<허생전>·<낙천등운> 등의 작품들을 상업소설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린 바 있다.⁸⁾ 이 논의는 고소설을 대상으로 상인소설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상인이나 상행위가 초점화되지 않는 많은 작품을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기적으로 19세기 이후 세정, 세태를 പി진하게 그려낸 세태 풍자소설이나 국문장편소설도 제외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고소설에 대해 상인 소설이라는 명칭은 유보해두고, 이 시기 고소설 속 상인의 형상을 개괄하여 정리한 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문장편소설 <보은기우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상인 형상과 그 의미를 진단해 보기로 하겠다.

‘民衆 氣質’이라는 포괄적 분류들 속에 묶여 소개된 이후, 이 분류들에 준하여 ‘致富談’·‘治産談’ 등의 연구 속에서 상인도 주목되어 왔으며, 『大豆』와 『歸郷』 등의 작품에 주목한 논의에서는 간략하나마 ‘客主의 상업활동’과 ‘치부담에 나타난 윤리’ 등을 다루기도 하였다.

8) 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32,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9.

2. 조선후기 고소설의 상인 형상과 〈보은기우록〉

이 시기 상인이 나타나는 첫 번째 작품은 <주생전>이라 할 수 있다.⁹⁾ 명나라 인물인 주인공 주생은 과거 시험에 붙지 못하자 궤짝 속에 숨겨 두었던 몇 백 냥 돈으로 배 한 척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장사가 될 만한 물건을 산 후 강호를 자유로이 유람하며 장사를 한다. <최척전>에서도 조선의 인물인 주인공 최척이 정유재란으로 중국에 넘어가게 된 후 항주 사람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安南)을 내왕하며 장사를 하게 된다. 이들 작품의 경우, 주인공들이 전문적인 상인이 아니고 상업행위 또한 구체적으로 그려 지지는 않지만, 선비 신분의 주인공들이 상인 혹은 상업행위에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주생이 장사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다니는 과정에서 여주인공 배도를 만나고, 최척이 일본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아내 옥영을 만나게 되는 등 단순한 화소에 그치지 않고 서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왕경룡전> 역시 주인공 왕경룡이 아버지의 고리대금융 수금을 위해 부상(富商)을 찾아 떠났다가 서주의 청루에서 빛으로 받은 돈을 탕진 하는 과정에서, 고리대금융과 청루기생업을 하는 상인들이 나타난다.

18세기에는 실학과인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의 한문단편에서 상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박지원의 <허생전>, <마장전>, <광문자전>, 정약용의 <조신선전>이 그 작품들이다. <허생전>은 허구적 설정 안에서 매점매석이라는 상업행위의 이론을 실제화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업은 물론 자본 증식의 이치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마장전>은 말 거간꾼을 비롯해 집 거간꾼 등 거간꾼의 능변술과 흥정술에 비유해 벗 사귀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광문자전>은 전당업이나 고리대

9) 엄밀한 의미에서 <주생전>의 창작시기는 1593년이므로 16세기 말이지만, 17세기 언저리로 보고 대상에 포함하였다.

금업 등 돈을 취급하는 직업을 다루고 있으며, 그 후기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정약용의 <조신선전>은 책 거간꾼의 일화를 담고 있다. 중인층이 부상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책 증개상 조신선의 삶과 책을 대하는 나름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실학파의 상인화소 작품들은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의 다양한 직업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직업에 대한 각종 인물들의 인식은 물론 작가의 의식까지 투영하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이나, 전당업, 고리대금업 등이 대상이 되면서 상업이나 상인의 부정적인 면모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성행한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에서도 심청이를 공양미 삼백 석에 매매해 가는 남정인이 나타난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는 세태풍자소설과 국문장편소설에서 상인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세태풍자소설인 <이춘풍전>에서는 주색잡기로 남편 이춘풍이 가산을 탕진하자 부인 김씨가 장변, 월수, 일수 등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천 금을 모은다. 또한 이춘풍이 장사 밀천으로 호조돈 이천량을 빌리는 것도 고리대금업의 일종이며¹⁰⁾, 평양에 갔을 때 이춘풍은 ‘서울의 부상대고(富商大賈)’로 소문나 이를 노리는 명기 추월의 유혹을 받는다. <채봉감별곡>의 경우 돈을 갚지 못해 옥에 갇힌 아버지 김진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채봉이 평양의 한 청루에 몸을 팔아 기생이 되는데, 이때 청루업을 하는 기생모가 돈이 되는 채봉을 적극 이용하려는 상황이 사실적으로 나타난다. <삼선기>의 후반부는 이춘풍과 흥도화, 유지연 삼인이 평양의 교방을 일종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이야기가 주 서사를 이루는데, 이들이 평양 교방을 장악한 데 대해 시정의 상업적 교방

10) 이춘풍이 호조돈 이천량을 빌리는 것은 당시 대곡제도가 관에서 운영하는 고리대업으로 변질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김소연, 『이춘풍전의 세태소설적 특징 고찰』,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7~28쪽.

세력과 관권과의 갈등에서 상업적 교방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조선후기 시정의 상업정신의 승리를 그리고 있다고 진단된 바 있다.¹¹⁾

국문장편소설은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세태풍자소설과 달리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방대한 분량 속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인 형상이 나타난다.

<쌍천기봉>연작은 전편인 <쌍천기봉>이 18권 18책, 후속작인 <이씨 세대록>이 26권 26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 파편적이기는 하지만,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인 등장 형상이 등장한다. 먼저, 1대의 인물인 이현은 서경으로 가던 길에 어느 촌의 주점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사람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인육 만두를 파는 주막이었다. 이현은 계교를 써서 달아났다가 후에 객점의 노소를 다 결박하여 연경에 이르러 왕에게 고하니, 왕이 점주 등을 징치한다.¹²⁾ 남창이라는 곳에서는 갓난아기를 유괴하여 자식 없는 집에 일 천금을 주고 아이를 파는 인신매매 화소가 나타난다. 나승은 후에 절강의 객점에서 대주의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대주 상인인 송상집이 절강의 물화를 대주 가서 팔면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이문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아이를 팔아 남는 이문에는 비교도 안 된다며 떠벌린다. 또한 이 대주 상인 송상집은 일본에 가서 흥판을 할

11) 박일용, 『조선후기 齣설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下)』, 『韓國學報』14, 일지사, 1988, 93~96쪽.

12) 이런 인육만두가게 화소는 <성현공숙렬기>연작에도 나타난다. <성현공숙렬기> 21권에서 형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해치려 하는 동생 임유린은 여러 번 형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벗어나자 형과 화해하고자 축 땅에 이르는데, 여기서도 형 임희린은 축 왕에게 항복을 얻고 모두에게 칭송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분함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구강(九江) 가로 선유(船遊) 나간 임희린을 독살하려고 배에 오른다. 그러나 하필 유린이 오른 배의 사공이 유명한 도적이라 유린을 어느 그윽한 촌중에 내려놓고 인육으로 만두를 만들어 파는 인소점에 만두감으로 판다. 만두감이 되기 직전에 형 임희린이 나타나 구해주지만, 만두감이 되는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호전>의 인육만두가게 黑點에서 인육을 만두감으로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

정도로 전문적인 상인이기도 한데, 이씨 집안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서사에 긴밀히 매개된다.¹³⁾

<낙천등운>에서는 주인공 석작이 부모를 모두 잃고 선주(船主)인 후선의 양자가 된 이후 여주인공 동예아와 수번의 만남과 이별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히 돈을 벌 목적으로 창가의 포주가 여러 여자를 사서 창녀로 만드는 인신매매와 청루업의 결합 양상이 두드러져 나타난다.¹⁴⁾ 동예아의 시련이 지속되면서 동예아가 숙부 동전채를 옥에서 빼내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때 남장을 한 동예아가 후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현금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인 일종의 명문(明文)을 쓰는 등 금전 거래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¹⁵⁾

<화씨충효록>에서는 여주인공 진채경이 부친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집을 세놓은 화소, 진채경의 여정 중 엄승에게 소금을 바치러 갔다가 뇌물이 적다고 곤장을 맞고 진채경 일행에게 길을 잘못 알려주는 염한(鹽漢)의 화소, 시모인 심씨가 두 며느리 윤씨와 남씨의 비단 짜기와 수놓기를 분업시켜 매매하는 화소, 화진이 전장에서 권도로 수하장수 설문응을 쌀 장사꾼으로 위장시켜 쌀을 매매하는 화소, 악인 장평이 안삼낭이라는 양민의 아내에게 반하여 이를 취하고자 할 때 마침 안삼낭이 쌀 무역 때문에 집을 비우는 화소 등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인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¹⁶⁾

13) 이 밖에도 서촉 상인, 서역과의 비단 매매, 복건의 장삿배 등 다양한 상인 화소가 나타난다.

14) 이지영은 이런 화소를 중국소설과의 영향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지영, 「낙천등운의 텍스트 특징과 형성배경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19, 국문학회, 2009, 61~65쪽.

15) 강문중, 「落泉登雲 研究」, 『영주어문』, 26, 영주어문학회, 2013.

16) 김수연은 이를 국문장편소설에서 인정물태가 강화되는 양상 중 현실적 경제관념의

그런가하면 19세기에 나타난 일련의 작품군인 한문장편소설 중 <옥수기>는 ‘십리진회’의 한 유명한 술집이 배경이 되고 있다. 주인공 가유진 삼 형제는 외할아버지 경상서의 생일연을 맞아 북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천하 명승지라는 금릉 땅에 들러 잠시 놀다가기로 한다. 금릉 땅의 주점에서 상인들이 두사인 집의 포도주 맛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듣고 진회의 유명한 술집인 두사인 집을 찾아가기로 하는데, 이때 진회는 명대 진회라는 지역이 지니는 사실적인 특성을 매개로 하여, 화려한 누각과 술과 여자로 대표되는 유흥의 공간으로 그려진다.¹⁷⁾ 다른 소설의 청루업과 유사한 술집 화소가 나타나지만, 그 술집에서의 유흥이 여유와 유쾌함 속에서 긍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작품의 분량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면서 상인 형상의 또다른 독자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문소설

작품	상인 형상과 관련 서사	배경
주생전	주인공 주생이 과거공부를 접고 배를 사서 장사하러 다님	중국(/조선)
최척전	주인공 최척이 중국 상인 송우와 함께 베트남으로 비단과 차 장사를 하러 감	중국(/조선)
*왕경통전	주인공 왕경룡이 아버지의 고리대금업 수금을 위해 부상(富商)을 찾아 떠났다가 청루에서 빚으로 받은 돈을 탕진함	중국
허생전	매점매석을 통한 자본 증식	조선
마장전	말 거간꾼/ 옷감 가게 주인의 상술	조선
광문자전	전당업/ 고리대금업	조선
조선선전	책 거간꾼	조선
*옥수기	주인공 가유진 형제가 과거길에 금릉 진회의 두사인이 운영하는 주색가에 들러 한 달 이상을 유흥.	중국

반영으로 진단한 바 있다. 김수연, 『<화씨충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6~84쪽.

17)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국문소설

작품	상인 형상과 관련 서사	배경
심청전	남경 상인의 인신매매	조선/ 중국
*이춘풍전	이춘풍의 처 김씨의 일수, 월수, 장변 등의 고리대금업 이춘풍의 평양 장사행 이춘풍의 장사 밀천을 탕진하게 되는 청루기생업	조선
*채봉감별곡	채봉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몸을 파는 과정에서의 청루기생업	조선
*삼선기	이춘풍과 홍도화, 유지연 삼인이 평양의 교방을 일종의 사업체처럼 운영.	조선
*낙천등운	무역상/고리대금업/인신매매/청루기생업	중국
*쌍천기봉 연작	인육만두가게/ 인신매매/대주 상인의 일본 흥판/ 서역에서 온 상인	중국
성현공숙털기	인육만두가게	중국
조씨삼대록	양주 상인의 화물 매매	중국
*화씨충효록 ¹⁸⁾	쌀 무역상, 집 팔기, 소금바치(鹽漢)	중국

이처럼 조선후기 고소설들은 작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업 활동이 서사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상인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과 조선을 모두 배경으로 하면서 상인이나 상업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앞서 전제된 것처럼 상인의 삶이나 상업 행위가 전면화되는 작품은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문장편소설 <보은기우록>은 유일하게 중국이나 일본의 상인소설에 비견될 만한 상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보은기우록>에는 푸줏간 운영, 고리대금업, 청루기생업, 비단 매매와 무역, 서화 매매 등의 다양한 화소에서 상인 형상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그 중심에 주인공 가문이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 가문의 의해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업행위가 작품 전반의 서사와 갈등에 긴밀히 매개되고 있다.

18) *표시는 상업이나 상인 관련 화소가 서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작품들이다.

<보은기우록>의 이런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도 포착되었고, 상당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이를 통해 당대 화폐 경제상의 반영, 재물이나 재화에 대한 인식 투영, 전통 윤리와 가치관의변화 등의 의미가 확인되었다.¹⁹⁾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에 기대어 논의를 진행하되, 상인 형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 보고자 한다.²⁰⁾

3. <보은기우록> 속 상인 형상

<보은기우록>은 <명행정의록>과 연작 관계에 있는 국문장편소설로,

-
- 19) <보은기우록>은 일찍부터 재화를 소재로 다루는 작품들과 함께 다수의 논문들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신선희는 ‘富’라는 주제를 통하여 경제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보은기우록>을 윤리와 부의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다룬 작품으로 보았다.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하성란은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 인식을 살펴보는 가운데 <보은기우록>을 화폐경제 시대의 이윤 추구가 현실적으로 묵인되면서 도덕적으로는 부인되는 이율배반적이고 과도기적인 시대 현상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평하였다. 하성란,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임형택은 18,19세기 화폐에 대한 실학과 지식인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다루는 가운데 <홍부전>과 <보은기우록>을 언급하였다. 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민족문화사연구』, 18집, 민족문화사학회, 2001. 최수현은 <보은기우록>의 시대 배경인 조선후기가 자본주의의 맹아기로서 농업 사회에서 상업 사회로의 변모의 시초를 보이면서 신분제의 혼란을 가져왔던 격변기였다는 점을 전제로, <보은기우록>의 작가가 경제력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를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가운데 재화의 올바른 사용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상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덕성을 상실한 재화 추구 방식으로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0) 대상 텍스트는 (장서각본 18권 18책을 교주한) <보은기우록> 上·下, 『경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그 후편인 <명행정의록>의 독서 기록이 홍희복의 <제일기언>(1835-1848)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8세기 중후반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보은기우록>의 1대 인물인 위지덕은 5대째 벼슬길이 막혀 가문이 궁핍에 시달리게 되자, 벼슬을 자기 집안의 불호지사(不好之事)라 여기고 오직 치산(治産)에 몰두한다. 푸줏간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이익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병행하는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아들 위연청은 부나 재물에 뜻이 없어 부친의 뜻을 여러 번 어기게 되면서 부자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급기야 아버지 손에 죽을 절명의 위기를 맞았다가 구현웅이라는 도사에 의해 구출된 이후, 그 밑에서 수학하여 문무과를 겸하여 장원급제하고 관료로 현달하면서 가문을 부흥시킨다.

1) 몰락 양반의 푸줏간 운영

위지덕은 양반이지만 5대째 벼슬을 못하여 궁핍에 시달리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초부 목동의 일이나 시정 상고의 일도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닥치지 않고 하는데 심지어 푸줏간을 직접 운영하기까지 한다.

부친이 반기미 업서 무심이 불 썬이오 모친의 반기느 심이 황홀하느 감히 배푸지 못하고 함호불토하니 다만 비더 취렴에 황황급급하니 장번곡가의 돌돌망망하여 상고의 무리로 교두논니하고 점주의 세로 힐난슈변하니 문전이 혼잡하고 체면이 슈상하니 노주에 분이 업스며 상하의 별이 업서 종일토록 비비하느 무리 들네며 푸즈와 육축이 문의 가득하니 이 엇지 명쥬 티후에 여풍이 잇스리오 고중의 쓰헌 거슨 곡식이오 방중의 가득헌 부벽은

21) 최수현, 앞의 논문, 9~13쪽 참조.

하괴라(권1)

위지덕의 아들 위연청은 5세에 외숙을 따라가 수학하다가 11세에 본가로 돌아온다. 위연청은 부모를 그리던 회포를 풀까 하였으나 아버지 위지덕은 반기기는커녕 무심히 볼 뿐이고, 대신 상고의 무리와 머리를 맞대고 이문을 따지는 데만 골몰해 있다. 이 집은 그야말로 상인들을 비롯해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정신없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더해 점포에는 육축이 가득 쌓여 있기까지 하다.

츄후로 원의의 히계 일부역심하여 **의관을 갖초입고 단의단과로 늑축을 모라 드리고 푸즈로 몸소 감심하느니라** 심상헌 쇼견이라도 동희의 썬러지 고져 혀려든 허몰며 위옥슈의 빅설 청빙갓흠이리오.....님의 도라완 지 일삭 이 못하여 **원의 아즈로 푸즈의 증싱 다히난 거슬 보살피며 쥬청의 이식 거두난 거살 쇼입하라 하느니라** 옥슈 거역지 못하여 푸즈를 넘혔더니 **원의 단삼초모로 저을을 들고 친히 고기를 다라 노왕모 노시를 맞져 이식을 낫 낫지 분부하고 손조 푸즈 문을 잠으며** 아즈를 불너 왈 네, 갓 왓고 나히 어리니 남의게 속으리니 창염하라.....불초이 가의 넘뉴하여 연연이 시봉을 폐하고 **딕인이 친히 가서 근근하스 지어 살육 토티히셔서 가정의 푸즈를 열며 업위선조 시평을 잡으시니** 도시 히아의 유츄불효흐미라 쇼지 엇지 낫찰 드려 천일지하에 셔리잇고(권 1)

위연청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돈 모으기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아버지가 매우 엄하니 명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먼저 가게에 나가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린다. 이에 위지덕은 한 달 쯤 지나자 본격적으로 아들 위연청에게 고기를 다루는 일을 보조하게 하고, 주점의 매상을 단속하는 일을 맡긴다.²²⁾ 위연청은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가게에

나기는데, 이때 위지덕은 간편한 복장으로 저울을 들고 직접 고기를 달아 팔고 마지막 가게 단속까지 하면서,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잘 속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 이 과정에서 위지덕이 단순히 가게를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원의 비록 흥완하나 일본 감동함미 잇더니 명일의 임의 푸즈의 고기를 팔고 니를 거두어 다시 제양을 사라 보시고 남은 고기 두어근을 가져 쥬방의 주어 찬션을 린드라논디라 옥쉬 띄셔 밥 먹으며 오직 칩소로 하저호고 육경을 접구치 아냐 임의 증생의 고기를 먹지 아닛는가 호여 무려 굴오덕 네 엇디 소식호노노 칭이 무로물 조차 자리를 써나 썩를 그르고 돈슈테음 왈 작일 업피 절엄호시니 불초이 감히 두 번 소회를 브르지저 고치 못호읍는 디라 도라 칭각건덕 묘상왕이 산영을 즐기거늘 변희 삼년을 념육을 먹디 아 니니 감동호여 전념을 그치고 약양즈 체 식어미 늬의 둑을 먹거늘 감지 못밧 들물 우리 뉘우츄를 어덧거늘 소지 불초 무상호여 임의 예 칩랍호물 엇디 못호니 도료혀 녀즈만 굶디 못호은 고로 츄마 제양의 고기 임의 조흔 마슬 탐치 못호미라 무로시물 조차 감히 은휘치 못호노이다(권2)

위지덕은 자신이 포악하게 구는데도 순응하는 아들 위연청에게 다소 감동하여 팔고 남은 고기로 반찬을 만들게 하여 아들에게 먹이고자 하는데, 위연청은 채소만 먹고 고깃국을 먹지 않는다. 위지덕이 그 동안 고기를 먹어 보지 못해 그런가 하여 물어보자 위연청은 변희나 악양자의 처

22) ‘쥬청의 이식 거두난 거살 쇼임호라 호논지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위지덕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가운데 주점을 겸하고 있으며, 이때 주점의 매상을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식(利息)’은 보통 이자를 의미하지만, 고기를 달아 팔면서도 이식을 부탁했다는 데서 고기 판 값, 매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후의 고리대금업과 관련지어 근처의 주점에서 일종의 일수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사를 들어 육식하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결국 이 말에 분노한 아버지 위지덕에 의해 능변으로 명을 거역한다 하여 큰 매를 맞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고깃국을 둘러싼 공방이 오고가고 그 결과로 아들에게 매를 드는 상황은 상당히 새롭고 흥미롭다. 또한 위 인용문에는 고기를 팔고 남은 돈으로 다시 고기를 사러 보내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 푸주업 운영이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원의 홀연 감동하여 굴오더 푸즈를 내 친검흐를 네 저렷뵈 종신디통을 삼은즉 츠후로 제양을 점방 푸즈의 훗터 살육 밋육흐를 내 몸소 아니리니 네 쾌히 혼을 풀고 의스를 다시금 징변하여 역명흐기를 능스로 삼지 말나 공직 불승디열혀여 빅빅 사은혀여 성덕을 칭하하니 원의 즉시 노즈 쇼이 노삼을 제양 대히던 연장과 푸즈 괴구를 당대랑 푸즈의 맛겨 일일 니를 바 드니 이 실노 천만의 불의에 이상흔 일이라 효즈의 디성을 보리러라(권2)

아들 위연청이 심한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푸줏간 운영을 반대하며 통곡하자, 위지덕은 그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그러나 푸주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아 그 동안 쓰던 기구와 연장을 이웃 점방에 맡기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다.

이후 푸주업은 직접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아들 위연청의 대외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작품의 배면에 자리하게 되지만, 푸주업을 하는 몰락한 양반이라는 <보은기우록>만의 파격적이고 독자적인 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원과 결탁한 대규모 고리대금업자

위연청의 간청에 의해 푸주업의 직접 운영을 양보한 위지덕이 이후 몰입

한 것은 소작농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부터 소항주(蘇杭州)의 점주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이다.

츄후로 간언이 무익호를 썬드라 오디 식이는 바의 스지라도 불감위여가
 하니 빛을 주며 니를 맞는 스이 취렴호를 명호즉 감히 면치 못하여 미전을
 거두매 큰 말과 무거운 저울을 버리고 되며 돌기를 저드려 하라 하며 십분
 의 혼비를 취하나 원의는 흉악이 고향하여 가족을 벗기며 피를 색듯호되 힐
 난징변호여 능히 다 거두지 못호던 바로 싱은 구설을 허비호미 업고 성식을
 움죽이디 아니코 제제히 바다 인인이 못밋출가 근심호는디라 또 허다 문서
 산계호매 힐난분운호여 갑호며 준 거시 밧고이고 자그며 만흔 거시 셋기여
 종일 언정호여 단서가 미히호던 바로 싱이 호계호 후는 고뷔진 물이 동으
 로 모히고 현 실이 썬치 풀님 솟희여 슈재를 장썬고 여재 고개 조의니 고로
 원의게 용납호를 어드니(권2)

위지덕은 빌려준 돈의 이자 받는 일을 위연청에게 시키는데, 십분의 일의 이자를 받는 방식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자 받는 방식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고리대금 문서들이 정리가 안 되어 매번 언쟁이 이루어졌던 것을 위연청에게 그 회계를 맡긴 이후로는 말끔하게 정리되는데 이 일로 비로소 위연청은 아버지 위지덕에게 인정받게 된다.

일일의 원의 싱을 불너 왈 쇼쥬 당원의게로 비단 푸즈를 열고 나의 지책
 은 이천냥을 어더 즉년의 비로 갑호며 하니 등보를 노즈로 여슈치 못호리
 니 네 가문의 표증을 명빅히 호고 일후의 위길호는 례 업게 하라 싱이 만분
 절박호나 이 극호 비례 아닌즉 감히 슬호며 불가호를 니르리오 오디 유유슈
 명호며 명일 발형호시 은즈 원의 심복 조즈 왕쇼삼이 뉴은호고 흥니는 서동
 청운을 지웠시니 쇼삼은 녹운의 조재오 원의호 도아 불의로 복스호미 극악
 디 아니미 업더라 여러 날이 못호여 쇼쥬 니르러 당원의를 츄차 은즈를 던호

고 문귀를 명백히 하며 좌우넉니의 증표를 바다 곳쳐 일이 업는디라이
곳의 원의게 밋천을 아니 진 푸직 업는 고로 냥똥의 스스로 돈이 업서도
즈안의 술 사물 근심치 아닐 배로되 싱이 혼 곳도 아니고 쪼 당원외는 박실
 혼 사름이라 극박홍완흔은 위원의와 다르나 요것의 즈물 분주흔은 위원의와
 일양이니 싱이 당가의 머무디 아니코 동서로 숙식하여 덩체 업더니(권2)

원의 개회치 아니코 향궐의 핫튼 은적 잇서 상고 접방의 돈 배 오백금이러
니 그 후 여러 번 번니하여 뉴천여금이 되어시되(권5)/ 노당의 말이 그르다
 원의 비록 치가히기로 남을 뉘여시나 엇디 귀읍스디 해 밋쳐시리오 노인 왈
위원의 빚 주는 법이 돌시된 즉 빚을 받느 이 양궐는 니르디 말고 소항 동남
상고와 가회재 저의 빚줄 아니 진 재 이시리오마는 장스흔는 사름들은 문화
 를 프라 즉시 폴므로 빚줄 갑고 니를 남기거니와 가난혼 빚성이 처음 기한을
 견디지 못하여 돈을 어더 쓴 자면 기한의 갑디 못허거든 고관홀 문디를 민드
 러 일흠 두며 증인허었다가 기한의 밋춘즉 독축 고관흔는 고로 박브득 되었
 는 문서를 민드니 이럿듯 헝기를 여러 번 혼 즉 흐나히 열히 되어 열히 빅이
된 즉 닷냥이 섯냥이 되고 열냥이 빅냥이 되어 제 육역으로 맞디미 아니나
이런 이즈 구하여 제 손으로 즈구흔 거슬 어디 가 발명허리오(권6)

앞의 인용문에서는 소주의 장원의가 비단 가게를 여는 데 위지덕이 돈
 을 빌려주면서 그 계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들 위연청을 보내고, 문서
 를 작성하여 먼저 돌려보낸 후 위연청이 남아 유람할 때 이곳 가게들이
 위지덕에게 빚지지 않은 곳이 없어 돈이 없어도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나
 타난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소항주의 여러 가게들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나타나난다. 특히 서호의 배 위에서 아버지 위지덕의 화가 이곳까지
 미쳤다는 노인의 대화를 엿듣고 위연청이 잘못 알 것이라고 하자, 노인은
 이곳까지 위지덕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악덕한 회수
 과정을 하소연한다. 이 두 인용문을 통해 위지덕의 고리대금업이 근방에
 서 이루어지는 소규모가 아니라 이웃 지역까지 장악하는 대규모의 것임

이 드러난다. 또한 은 이천 냥이 일 년 만에 두 배가 되고, 5백금이 수천여 금으로 불어나는 그야말로 높은 고리대 이자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²³⁾

문득 혼 스름이 이셔 서로 말하며 이대로 양주가 위원의 푸즈의 은을 꾸어 남경 비단을 고아 밧치고 왔노라 하니 강완이 보니 제 아던 호이랑이라 불너 가로대 호이가야 그 스이 어대 갓던다 이랑 왈 님 싱계 어려워 양귀야는 사름이 잇더니 그를 다리 노화 위원의 은 삼백냥을 거연의 어더 비단을 고아 프라 니식을 잡고 오노라(권4)

장스흔는 사름들은 물화롤 프라 즉시 풀므로 빗줄 잡고 니를 남기거니와 가난흔 빅성이 처음 괴한을 견디지 못하여 돈을 어더 쓴 자면 괴한의 갑디 못헝거든 고관흔 문디를 민드려 일흠 두며 증인헝엿다가 괴한의 밋춘즉 독촉 고관흔는 고로 박브득 되엇는 문셔를 민드니 이렇듯 헝기롤 여러 번 혼 즉 헝나히 열히 되여 열히 빅이 된 즉 닷냥이 섯냥이 되고 열냥이 빅냥이 되여 제 옥역으로 맞디미 아니나 이런 이즈 구헝여 제 손으로 즈구흔 거슬 어더 가 발명헝리오(권6)

그런가 하면 위 인용문을 통해 위지덕과 평소 친분이 있는 인물이나 소규모 상인들뿐 아니라 급전이나 장사 밑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도 고리대를 쓰는 것이 나타난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같은 고리대라도 장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익을 남겨 값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일반 빈곤층에서는 결국 기한을 넘겨 이자가

23) 실제 조선후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고리대의 이자율이 폐해로 지적되고 상소문으로 건의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사실상 연 50%를 넘는 이자율로 인한 고리대의 폐해와 관련하여, 최석정은 영조에게 상소문을 올려 2할의 이자 원칙을 지킬 것을 건의했으나, 고리대 행위의 폐단은 이 이후에도 여전하였다고 한다. 최송희, 『조선후기 고문서를 통해 본 고리대의 실태』, 『한국문화』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96쪽.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²⁴⁾

돈 쓴 재 혹 밋천을 낭재하며 가직을 파손하 니 만하 전취 세월하여 스펑
으로 바들 길이 업는다라 금포디휘는 도적 잡고 빗빳는 아문이를 보고 극
진이 대접하고 만만축당하여 빗줄 준수이 바들던디 똥사례하마 문권을 주
니 당디휘 낙낙히 허락고 가니라(권5)/지휘 흔 적은 도회를 주어 왈 녁존이
임의 여츄 대거조홀 슈단을 하여시니 이거슨 엇디하라 하시더뇨 **싱이 보니
십지일을 당지휘로 가져 슈고를 사례하라 흔 쫓이러라** 임의 어진 일흠을
어더 주고 엇디 실신힌 꾸지람을 듯게 하리오 뉴한으로 은즈를 알퐁 던하여
왈 이는 가히 존공을 사례하라 하시더이다 지휘 대회하여 회희 쇼왈 위형의
유신힌물 사례하노라 하더라(권7)

이 번 당지휘 느려와 관위로 다 바드니 혼을 넘진 즉 험로으로 다스리니
이런 고로 집과 처즈를 다 프라 돈 밋친 재 몇 사름인동 알니오 다만 해를
바들 썬이리오(권6)/ 수일 후 디휘 왔다 **하거늘 싱이 몬져 뉴한을 보너여
처음 부친 산채흔 문서 보기를 구하니 디휘 문권을 주며 뉴한드려 왈 임의
슈채를 못차시니 네 낭군이 명일 아로와 가져가라** 한이 회보하니 싱이 쯔시
보건디 도로 소년이 도로혀 헐헐디라 여러 민호와 대소 푸즈의 혼튼 **본전이
오릭양으로 년년 준 니흔 거시 임의 오천냥의 디낫시니 그 바들 썬 형벌하
며 명일하던 초식 혼가지로 왓더라(권7)**

위의 인용문들은 위지덕의 고리대금업이 관원과의 결탁 하에 이루어지
는 것을 드러낸다. 앞의 인용문에서는 위지덕이 소주 채무자들의 파산으
로 고리대 환수가 어려워지자 장지휘라는 소주의 관원과 결탁하여 사례를
약속하고 위탁하는 것과 임무 완성 후 십분의 일의 사례금을 받고 위지덕

24) 가난한 농민과 상인이 주 채무자가 되고, 그 대부분은 역시 농민이며, 상인들이 장사
밋천을 고리대로 마련하는 조선후기의 정황과도 닮아 있다. 마석한, 『17,18세기 고리대
활동에 대하여-사체를 중심으로-』, 『경주사학』8, 동국대학교 사학회, 1989, 55~56쪽.

이 신의 있다며 만족해하는 장지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위탁받은 장지휘가 권력을 휘둘러 폭압적으로 대금을 환수한 상황이 나타난다. 장지휘는 위지덕에게 돈을 빌려 비단 가게를 열었던 장원의의 아들로, 아버지와 위지덕의 친분과 십분의 일이라는 사례금 때문에 위지덕과 결탁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관위(官威)’는 관원이 관직의 권력으로 개인의 고리대 환수에 임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강도감이라는 관료 또한 위지덕과 서촉 부상의 비단을 무역하고자 논의하는 등 위지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료층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부자 상인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수월 후 당지휘 셔간을 붓쳐 슈쾌를 거의 다혀서시던 문서 허다하고 번
복함미 호란하니 문적 능하고 산계 잘 하는 니를 보내어 바다가라 호엿거늘
원의 심을 명하여 명일 향취 가 디휘를 보고 은즈를 출혀오라 하니(권6)/
이윅고 허다한 사름이 돈을 매며 은을 봉하여 그득이 디하의 밧칠시 저마
다 눈물을 흘니고 목이 메여 이는 집을 업시흔 갑시라 하며 저는 즈식 폰
은즈라 하여 설위헌난 소리와 원통헌 정유를 할때.....이제 다만 본은 오빅
냥만 거두고 기여 허다 니전은 각기 탕척하는 이 다 칭명의 그르치시미오
다른 의논이 업는이다..... 이에 뉴한으로 하여금 혼 집문서를 갖다가 차례
로 상고하여 허다 해인을 각각 일흠을 불너 처음 본전만 거두고 몇히 니전
몇냥을 도로 주노하 하며 은즈 다쇼와 번니 후박대로 제제 환급하니 문세
무수하고 명회 허다하야 바든 쉬 착잡하고 늘기 황난하여 줄연이 단서를 글
하기 어려우디 굿터여 정신을 허비하고 슬피물 슈고로이 하니 업서 봉안으
로써 무수한 일흠을 불너 차례로 제제히 다 츠자주니 삼시지간 혼 사름도
그릇 주미 업고 혼 폰도 틀니지 아났시니 노양 빅일공스를 일일 결단하흔

25) 관료들이 부자 상인과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현상이 빈번해진 18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과 밀접하다.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92쪽.

오히려 쉬운 일이라(권7)

위연청은 위지덕이 벌여놓은 고리대금업의 대리자이자 실제 수행자가 되는데, 장지휘에게 위탁한 소항 상인 대금 환수도 직접 담당하게 된다. 앞 인용문에서는 이자 회수를 부탁받은 장지휘가 대금을 다 회수했으나 문서가 혼잡하니 회계 잘 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여 위연청이 항주로 떠나게 되는 정황이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은 장지휘가 건넨 문건을 확인한 후 실제 대금 환수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위연청은 문건 확인을 통해 오백 냥이 오천 냥으로 불어난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고, 더불어 빚을 갚느라 집은 물론 자식까지 팔았다고 하는 채무자들의 절통한 울부짖음 앞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아버지 위지덕의 본래 뜻이라고 하면서 원금만 받고 이자는 모두 환급하는 것이다. 이 일로 위연청은 위지덕에게 철퇴를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고리대금업은 작품 중반 이후까지 지속되는데, 아들 위연청이 과거에 급제한 후 양주에 돌아와 위지덕과 화해하고 이 틈을 타 고리대금하던 문서를 다 태우고 돈을 나누어 주자고 할 때까지도 위지덕이 쉽게 응낙하지 않다가 경사에 돈이 많다고 하자 그제야 허락하는 데서 일단락된다.

4. <보은기우록> 속 상인 형상의 의미

- 1) 본격 상인 소설의 등장-상인 생활상에 대한 포착과 이상적 상인상 모색

<보은기우록>에서 위지덕의 푸줏간 영업은 그 자체로 파격적인 화소

이다. 5대 재 한로(寒露)의 몰락한 양반 집안으로 심하게 곤궁함을 겪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²⁶⁾ 그 장사가 굳이 푸줏간 운영이어야 했는가 하는 점에서 그 파격은 의문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몰락한 양반이 푸줏간을 운영한다’는 설정의 파격은 ‘푸줏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실상에 와서 다소 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돈 때문에 안 해 본 것이 없고 급기야 푸줏간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돈에만 눈 먼 몰락 양반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는 데 그칠 수 있지만, 단삼 초모로 직접 고기를 손질하고 저울로 달아 팔며 가게 문까지 직접 닫는 모습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성실한 상인의 하루를 연상하게 한다. 상인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으면서 자식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나 고기 다루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보조하게 하는 것도 자식에게 자신의 일을 제대로 전수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상인의 모습이다. 나아가 그날 남은 이문으로 다시 고기를 사오도록 하는 것이나 남은 고기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것은 그야말로 푸줏간 상인의 생생한 생활상이다.

한편 고리대금업은 고소설 속 상인화소에서 가장 빈번히 드러나는 화소로 고소설 상인 화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익숙한 것이다. 이는 문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부행위에 의한 재산증식이 사족의 윤리에 위배되지 않았던 정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전문적

26) 이 시기 한문학에는 몰락한 재상 집안의 아들이 생선과 소금장사로 나서서 장사꾼들과 너나 하며 지내다가 소금장사로 마치거나 많은 몰락 양반들이 나무장사 등 장삿길에 들어서는 것뿐 아니라, 여유 있는 사대부가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리인 써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허경진, 『조선 후기 한문학에 나타난 상인문화』, 『동방학지』1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219~223쪽.

27) 서길주, 「개항후 利子附資本에 관한 史的考察(1)」, 『국제대 논문집』7, 국제대, 1979, 참조.

이고 대규모의 고리대금업이 아닌 일수나 월수, 장변 등은 연원이 오래 된 것이고, 특히 여성들이 치산하는 한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²⁸⁾.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고리대금업이 주목되는 것은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주요 화소라는 것 이외에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미전으로 받는 과정에서 ‘말’과 ‘되’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장면, 적은 돈을 수시로 빌리고 갚고 하는 과정에서 문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언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나 이를 위연청이 담당한 후로 매듭 풀리듯 잘 정리가 되었다는 장면은 위지덕 자신이 집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고리대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평소 친분 있는 사람이지만 증표를 정확히 남기기 위해 아들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것, 빌려주는 은자를 도둑맞을까 하여 건장한 머슴을 대동하여 보내는 것, 고리대 환수를 위탁받은 장지휘가 임무를 완수하고 문서 정리와 회계에 능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위연청이 찾아가 아버지가 썼던 문건과 장지휘가 거둔 문건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실제 돈과 실물 환수에 임하는 것, 이자가 붙어나는 것과 기한을 갹신하면서 독촉하는 행태가 문건에 그대로 담기는 것 등은 소항주 상인과 접목까지 장악한 대규모 고리대 운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고리대금업의 경우에도 아들에게 일을 전수하는 양상이 드러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푸주업에서 위지덕이 자신감을 보이면서 아들에게 우월한 모습을 보인 데 비해, 고리대금업에서는 자신의 방식과 대조되는 아들의 방식에 주춤하기도 하고, 특히 회계나 문서정리와 같은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아들에게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신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28)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 2011, 199~200쪽 참조.

이처럼 푸주업이나 고리대금업 화소를 통해 생활인으로서의 상인의 모습과 실제 상업 양상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과 더불어 상인의 윤리나 경영 지침이 드러나기도 한다.

위지덕은 자신만의 상업 윤리,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뢰와 근검절약이다. 여기에서 신뢰는 고리대금업에서 문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과 시간이나 돈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위지덕은 적은 돈이라도 철저하게 문서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잘한 문서들에 치어 곤란해하고, 친분 있는 사람과의 거래나 관원에게 환수를 위탁할 때도 언제나 문서를 작성한다. 이 고리대금 문서들은 후에 경사로 올라가게 될 때 위연청의 설득으로 겨우 불태워진다.

저 위원의 직물이 태산궤치 크는 슈단이 계궤궤치 적은고로 장각 가정의 식구를 괴로이 녀여 만치 아녀 농노촌흔이 수십의 밋디 못하고 7마다 쥬간 흐는 사름도 맞지디 아나시며 집이 크고 동산이 너르지 아녀 화초누각의 즐기를 보지 못하고 다만 여러 간 창고와 덩방만 비치하여실 분이오.(권4)

또한 위지덕은 근검절약을 거의 맹신하면서 생활화하고 있다. 위 인용문은 동네의 파락호 송침과 강완이 위지덕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위지덕에게 돈을 빌려 장사를 하면서 이 집에 여러 번 가본 적 있던 호이랑에게 정탐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위지덕이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껴 관리인이나 사환 등도 없고 화초누각을 꾸미지도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집 지키는 데도 돈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강도행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위지덕의 근검절약은 후에 며느리 백승설에게 이어져 노비 관리, 창고와 재산 관리 등에 적용된다.

이처럼 상인의 생활상과 상업 방식, 상인 윤리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

고 있으며, 이는 상인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상인의 전면화라는 점에서 분명 다른 고소설 상인화소에서 발견하기 힘든 새로운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움 속에는 악덕 상인의 구체적 형상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위지덕이 상인으로 표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과연 독자들에게 악덕 상인의 삶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면서 상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아들 위연청에게 눈을 돌려 보자. 위연청은 양반 후손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결국 문무과에 모두 급제하기에 상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으로 푸주업이나 고리대금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인 행세, 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보이는 상인 형상은 어떠한가. 위연청은 주로 아버지의 고리대금업을 위임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가 보이는 형상은 먼저 회계나 문서 정리에 재능을 보이는 유능한 상인의 모습이다. 아버지 위지덕이 신뢰를 중시하여 문서는 만들지만 그 정리를 제대로 못하여 골치를 썩고 원금과 이자, 이자의 증식에 대한 계산에 곤란을 겪는 데 비해 위연청은 이런 사무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이는 형상은 의로움과 정으로 채무자들을 대하는 덕 있는 상인의 모습이다. 아버지 위지덕이 무력을 동원한 협박을 해도 다 견디지 않았던 이자를 별말 없이 온화한 기색으로 순순히 견으며, 고리대 원금만 받고 이자는 정리해 주는 한편, 화재가 났을 때는 재산을 난민을 구호하는 데 기증한다.

상인은 아니지만 위연청에 의해 덕 있는 상인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악덕 상인과의 대비를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바람직한 상인의 모습을 모색하는 측면도 있다. 결국은 상인이라는 표지를 보이는 위지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위연청의

덕상 형상이 모두 위지덕의 이름을 빌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칭이 념슬 왈 가친이 처음의 저 무리 은즈를 주시믄 혼갓 화식을 위흐미 아니라 각각 저희 디원 소직므로써 급흔 거슬 구흐시미어늘……허다한 사람이 개개히 머리 좃고 손을 합흐여 위원의 활불대은으로 구산긋튼 지물 브리물 만나 집을 복고흐고 처즈를 등봉흐이다 흐고 츠레로 나가니 문이 베고 길히 쉴녀 송성이 우레 곶흐니(권7)

위연청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빛을 탕감해 주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화식(貨殖)’을 위함이 아니라 급한 사정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곧 아버지 위지덕이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한데²⁹⁾, 어쨌든 이로 인해 위지덕은 활불대은(活佛大恩)의 고리대금업자로 채무자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보은기우록>의 상인 형상은 도시와 상업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소설에서도 상인의 생활과 삶을 전면화하는 본격적인 시도를 보이는 동시에, 탐욕스러운 장사치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상인의 존재를 포착하고, 나아가 경영이나 윤리 면에서 이상적인 상인의 형상까지 모색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부자간 새로운 갈등의 설정- 사(士)와 상(商)의 정체성 갈등

몰락한 양반인 위지덕은 “베슬은 내 집에 불호지사요 글 잘흠이 한갓 스스로 괴로울 짜름이요 헛 이름을 중히 여겨 평생 궁권을 감심흐미 어리지 아니리오 부상 재수의 가음열며 평안흐미 흥낙이라(권1)”는 생각으로

29) “니를 탐흐고 의를 니즈며 일흠을 브리며 지물을 취흐는 본식라”가 양주 마을의 일반적인 위지덕에 대한 평이기도 하다.

글 읽는 것을 접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산에 힘쓴다. 5대 이상 몰락하여 극심한 곤궁함을 맛보았기에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주목할 것은 위지덕이 양반의 본분인 글읽기에 대해 지나친 혐오감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상되고로 벗혀 닌니 중독에 혼 혼 독서하는 니는 스괴지 아니하며 짐물 스랑하를 머리도곳 더하고 미곡 익기른 성명도곳 크게하니(권1) / 삼스네 의 이르미 빅호면 지식이 세스를 달통하는지라 원의 갈쇼록 불열 왈 이 지식이 곱고 정숙하미 단명단하고 욕심이 업스니 치산부가 혈 적목 아니 아니라 하고 스랑치 아니더니(권1) / 불초이 가의 님뉴하여 연연이 시봉을 폐하고 덕인이 친히 가서 근근하스 지어 살육 미미하셔서 가정의 푸즈를 열며 엄위선조 시평을 잡으시니 도시 히아의 유충불효하미라 쇼지 엇지 낮찰 드리 천일지하에 서리었고 원의 이 말을 듣고 심중에 불렬하여 변식 왈 쇼이 엇지 가스를 아라 겨냥하며 어른을 괴설하리오 치산하 혼 법이 막과어칙니 네 쇼활판탕헌 외구의 헌탕헌 시귀를 지저귀고 종일토록 무흠을 아마 흥거하를 보고 미미싱니하를 놀늬니 내 싱각기를 그릇하여 바리엿도다(권 1) / 원의 대로 대분하여 곱오되 요괴로운 아히 교혜 능변으로 여러번 내 명을 역하니 반드시 무덕히 글즈 넓은 해라 당너 가히 패가홀 당복이 되리니 아 니 다스리디 못하리라 하스 큰 매로 달표하기로 엄히 하니(권2) 이 집 가온 디 셔척이 업스나 후 의셔 약간 거인이 신행하미 잇고 잉잉이 2마니 미득하여 일간 셔실을 조비하였는고로(권2)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독서하는 이는 가까이하지 않으며, 지식이 출중한 아들을 오히려 문제삼고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숙에게 수학한 후 돌아온 아들이 고깃국을 먹지 않으며 변화나 악양자의 처 고사를 언급하자 글을 읽은 폐해라며 심하게 매질한다. 또한 위연청이 외가에서 돌아

왔을 때 이 집에는 서책도 없는 상태였다.

원내 원의 후장बाट기 반송이 덩것츠러 집을 브림헛섯시를 보아던고로 이
의 그 우헛 올나 넘어와 다 보니 과연 집이 솟굽어 즈시 뵈는지라 **원의 머리
와 관과 몸의 의과를 궂초지 아녀 단의 모즈로 창전의 괴좌하고**(권4)/ 디휘
님헛의 회자헛실 금의 준마로 군인과 토병이 조찰시니 양양즈득헛여 **위원
의를 디헛여 교만즈존헛여 제 문디 감히 우리디 못홀 줄 싱각디 못헛고 도
로혀 귀인이 촌민 보듯헛디 원의 개회치 아니코**(권5)

그런가 하면 이웃 마을에서 위지덕 이야기를 듣고 집 안을 엿보는 사람
눈에도 선비로는 보이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소주 장원의의 아들
장지휘가 금으로 관직을 산 후 위지덕을 촌민 대하듯 하대할 때에도 위지
덕은 그에 개의치 않고 고리대 환수를 위해 그에게 청탁하는 데만 신경
쓴다.

“금일 영광이 진실노 저희 벼를 비리오 그옥이 과분외람헛니 직물이 구상
솟희여도 즈신의 괴로움만 극헛고 슝의 지소헛미 심헛더니 **으즈의 청년
소활헛른 이럿듯 영귀현달헛여 구치 아녀도 일순의 십만관을 현슈헛물 보
니 친실노 취리헛미 문혹만 갖지 못헛물 안지라**(권11)

물론 아들 위연청이 문무에 모두 급제하여 금의환향하자 위지덕은 기
뻐하면서 영광이며 과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때 그의 진심은 자신이 상
행위로 힘들게 얻은 ‘취리(取利)’와 아들 위연청이 문학으로 쉽게 얻은
‘취리(取利)’의 대조에 대한 허망함 혹은 허탄함의 토로라 할 수 있다. 이
런 일련의 예들은 위지덕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족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버지의 정체성은 11세에 집으로 돌아와 푸줏간을 직접 운영하는 아버지를 보고 “오몸이 빅연 교목덕족으로 일딕 청엽이 잇거늘 불헿혀 과갑이 굿쳐지고 가디 빈곤헿 연고로 야야 도주공의 치가하시를 효 즉헿시니(권1)”라고 탄식하는 아들 위연청의 정체성과 대비된다. 여전히 사족이라는 위연청의 정체성은 후에 강도 무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너희 무리 힘써 경농헿여 구복을 계교헿미 울커늘 엇디 감히 취소 작당헿며 스 족지가의 돌입 노략고져 헿노노 썰니 물너가지 아니면 성명을 요대치 아 니리라(권4)”라고 호통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아버지가 팔고 남은 고기로 고깃국을 끓여 주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데서는 이런 정체성이 행위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아버지 위지덕의 상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들 위연청의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대비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집내독셔헿는 바는 짓거 아니나 금치 못헿니 양췌 읍현의 문인 직신 평일 원의를 춤뱃타 지소헿던 뉴는 심의 일흠을 듯고 밋디 아니타가 혼변 보기를 어든 즉 저마다 놀나 즐오디 이 사름이 과연 탐추비부 위지덕의 아들이 엇디 이럴 이 잇스리오 연작 흥곡을 나흐며 노리 괴린을 호흐미 즈고의 업스니 반드시 명분지즈를 불의로 강탈헿여 헿미라 헿고 직측상고는 서로 닐오디 이제는 위원의 집의 가기 어려우니 그는 낭군이 췌짓디 아니디 송연이 괴운이 축척헿고 말헿미 업스디 비한이 텀의헿여 감히 원의를 전췌치 혈간치 못홀너라(권2)

위연청이 돌아온 후 평소 위지덕을 비웃던 양주 인근의 문인재사들은 그 집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위연청의 명망에 놀라는 데 반해, 평소 이 집을 드나들던 장사꾼들은 이제는 그 집에 가

어렵다며 위지덕도 그 것처럼 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자간의 정체성 대비는 곧 부자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위지덕에 의한 일방적 가해의 양상을 띠지만, 그런 폭력에는 언제나 아들 위연청의 읍소와 아버지를 거스르는 행위가 선행한다.

중심 가문의 부자 간 갈등은 국문장편소설에서 중요한 갈등 요소로서, 어느 한 쪽의 성품 혹은 인격이 문제가 되거나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위지덕과 위연청의 갈등도 포악한 인품과 온화한 인품 간의 성품 갈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나타났듯이 작품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것은 사(士) 자체를 거부하는 아버지의 정체성과 사(士)를 고수하려는 아들의 정체성 갈등이다.³⁰⁾

그런데 위연청이 사족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지향과 달리, 실상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편한 복장으로 푸줏간 일을 돕고, 고리대 문서를 정리하는가 하면 고리대 계약을 하거나 대금을 환수하는 일 등의 심부름도 그대로 시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매매를 행하기도 한다.

뉴한을 주어 그로되 선빈 서화를 제작 매릭홀 빈 아니로되 너희 출범흔
직기로 늪의 업는 무리의 복스흔을 앓겨 이를 주느니 소항의 일을 비록 아는
직 이시느 반드시 감시 업슬 거시오 감시 잇는 즈는 심상흔 서화로 사리니
가히 타일의 서역상회 모힌 곳의 폰주 죽히 너의 탈채슈신홀 은을 어드리
라(권4)

위연청은 자신의 심복으로 여기게 된 뉴한이 어머니의 고리대 빚 때문에 노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서화를 그려 서역

30) 기존 논의에서도 이 부자간 갈등에 주목하였고, 재물 혹은 재화에 대한 욕망, 인식의 갈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유사한 의미망이지만, 본고에서는 ‘상인 형상’라는 주제에 천착하여 ‘사(士)’와 ‘상(商)’이라는 신분,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상호에게 팔도록 한다. 서역에서 온 호승은 이 서화의 가치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조야주 백 냥을 지불하고자 하나 뉴한 또한 욕심이 없는 인물이라 열 냥만 받는데, 이 진주 4~5개가 고리대 은자 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연청 서화의 가치가 재화의 가치로 치환되는 것도 분명히 드러난다.³¹⁾ 이때에도 위연청은 서화를 파는 것이 선비의 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뉴한을 시켜 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좋은 값을 받는 방법까지 일러준다.

도주공의 늑축 기르미 왕퓌의 업을 도모호던 나몬 슈단이라 즈공의 화식을 성인이 혐의 아니시니 혼갓 일절을 덕히여 하스틀 감심호미 디자의 호지 아닐 벤지 잠간 신상을 굴호샤 화실절용호시미 비례의 거술 취호미 아닌즉 시속의 불의로 구관호미 닛디 아니리잇가(권11)

실제 위연청은 푸줏간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부터, 아버지를 도주공에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회복한 시점에도 여전히 도주공이나 자공 등 이재에 능한 인물들을 아버지에 빗대어 아버지의 상행위가 권도였음을 역설하고 있다.³²⁾ 이는 아버지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발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상행위를 통한 치부로 인정받는 부자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드러내는 발화로 보이기도 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 위지덕이 그 지향과 실상에서 온전한 상인의 삶을 살고 있는 데 비해, 아들 위연정은 양반과 상인의 경계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31) 빅빅 고두 왈 은즈 천금이라 진주 스오기 쫓히 빠리니 논문 바를 었디 가지리잇가(권4)

32) 사마천의 ‘화식열전(貨殖列傳)’이 연상되는 지점이다.

33) 상인이 문학에 좀 더 일찍 반영된 중국의 경우도 유인과 상인 간의 정체성이나 중심/주변 인식에 대한 갈등이 주요한 갈등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상인들이 관리들과의

이렇게 볼 때 <보은기우록>의 상인회소는 한 가문 내의 아버지와 아들의 정체성 갈등이라는 부자간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아들의 내적인 정체성 갈등까지 중층적으로 설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17~19세기 중국이나 일본의 상인 소설 유행과는 거리가 있지만, 조선의 경우도 18세기 중후반부터는 상업이나 상인에 주목한 작품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부상대고(富商大賈)’로 소문나 이를 노리는 평양 청루의 기생 추월에게 폐가땅신당하는 <이춘풍전>으로 시작되는 <채봉감별곡>, <삼선기> 등의 세태풍자소설은, 실제 조선을 배경으로 평양 교방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시정을 비교적 짙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시기 난숙기에 접어든 국문장편소설 또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상업이나 상인 관련 서사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낙천등운>에서는 돈을 벌 목적으로 창

교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후에는 서문경처럼 본인이 직접 관리가 되어 官商이 되거나 그 자손을 관직에 진출시키는 것은 상인들의 꿈이었다. 그래서 儒商으로도 유명한 徽商은 바로 상인과 유인의 길을 겸하며 많은 관리를 배출했던 것이다.” 송진영, 앞의 글, “염상을 비롯한 상인들의 뇌리 속에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의 위치는 중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儒家학자들이 염상을 비롯한 상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상인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후에는 다시 士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다..... 賈而好儒의 문제가 부상한다. 물론 이런 모습은 《儒林外史》속에서 염상들이 끊임없이 유가 지식인 집단과 결혼하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신들은 염상이라는 상인의 위치지만 그들이 지향하고 바라는 위치는 儒者의 위치이다.” 나선희, 앞의 글, 125~127쪽.

가의 포주가 여러 여자를 사서 창녀로 만드는 인신매매와 청루업의 결탁 양상이 두드러져 나타나며, 그 속에서 현금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인 일종의 명문(明文)을 쓰는 등 금전 거래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화씨충효록>에서는 고관에게 소금을 바치러 갔다가 뇌물이 적다고 곤장을 맞는 염한(鹽漢)이나, 쌀 무역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악인 장평에게 아내가 농락당할 위기에 놓이는 안삼낭 등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인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은기우록> 또한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공유하는 가운데 창작되고 향유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푸주업이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상인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되고 그 생활상이나 경영 방침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 상인 소설이라는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사(士)와 상(商)의 정체성 갈등을 통해 신분 갈등이라는 가문소설의 새로운 부차 갈등을 설정함으로써 가문주의를 표방하는, 사(士) 지향의 국문장편소설의 변화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은기우록> 속의 상인 형상은 동시에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당시의 사회, 경제를 읽어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보은기우록> 속의 고리대금업은 실제 조선후기 고문서 등에서 나타난 고리대의 실태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전문성이나 대규모의 측면에서 당시 고리대의 전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고리대금업과 푸주업, 술집운영 등 여러 상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다른 장르 속의 시정 상황과 부합된다.³⁴⁾

<보은기우록>은 같은 시기 동아시아 상인 소설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 중국을 대표하는 상인 소설인 <금병매>와 비

34) 정인숙, 「〈텐둥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발달 양상 및 도시생활 문화의 탐색」, 『한국어교육학회지』 127호, 한국어교육학회, 2008년.

교할 때, 주인공인 서문경이 상인으로 설정되고 그의 집안을 중심으로 서문경의 상업 행위가 작품전반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며 장편소설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인인 서문경이 그 지역의 손꼽히는 부자이면서 관리들에게도 돈을 꾸어주고 압도적인 재력으로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위지덕과 흡사하다. 그런가하면 19세기를 대표하는 일본의 닌조본의 경우 역시 장편소설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인에 가까운 대상인과 고리대금업을 하며 인신매매를 겸하는 악덕 상인 등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는데³⁵⁾, 이 또한 위지덕의 상인 형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상인 형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조선의 상인 소설로서 독자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상인의 부(富), 돈과 밀착된 성(性)이 부각되지 않는 점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상인 소설은 돈 많은 상인들과 기녀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여성간의 애정담 혹은 성애담이 상인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데 비해, <보은기우록>에서는 기생 녹운이 위지덕의 돈을 보고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녀가 성애의 대상으로 흠모한 것은 양반의 면모를 지닌 아들 위연청으로, 위지덕과의 애정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상인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신분이 분명한 상인이며, 상인으로서 문사라 무사와 같은 양반 계층보다 인정받는 상황임에 비해, <보은기우록>에서 위지덕은 상인 형상이지만 양반의 후예이며, 작품 내에서 양반과 상인의 신분 격차가 견고한 점과 밀접할 것으로 보인다.³⁶⁾

35) 최태화, 앞의 논문 참조

36) 이는 <보은기우록> 한 작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을 다룬 이 시기 고소설 전반에서 드러나는 양상이며,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다른 소설과 변별되는 고소설 상인 형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은기우록>은 조선후기 고소설에서 상인 소설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시에 유사한 사회, 경제적 노정을 밟은 17~19세기 중국이나 일본 문학과와의 동질성과 변별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보은기우록>의 자장 안에 있는 작품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이런 의미를 좀 더 확대하고 그 깊이를 다지는 것이 본고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보은기우록> 上·下, 『경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 강문중, 『落泉登雲 研究』, 『영주어문』, 26, 영주어문학회, 2013, 127~153쪽.
-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 2011, 189~220쪽.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510쪽.
- 고영란, 『닛폰 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藏)에 드러난 교혼의 이면(裏面)』, 『일본어문학』34,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201~220쪽.
- _____,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 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학보』제88호, 2011, 81~92쪽.
- 김소연, 『이춘풍전의 세태소설적 특징 고찰』,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64쪽.
- 김수연, 『<화씨중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00쪽.
- 나선희, 『明清時期 鹽商의 자취 : 소설 『儒林外史』 속 鹽商』, 『중국어문학지』33, 중국어문학회, 2010, 107~129쪽.
- 마석한, 『17,8세기 고리대활동에 대하여-사채를 중심으로-』, 『경주사학』8, 동국대학교 사학회, 1989, 43~69쪽.
- 박일용, 『조선후기 휘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下)』, 『韓國學報』14, 일지사, 1988, 77~99쪽.
- 서길주, 『개항후 利子附資本에 관한 史的考察(1)』, 『국제대 논문집』7, 국제대, 1979, 215~261쪽.
- 송진영, 『명청상고소설시론(明清商賈小說試論) -《금병매(金瓶梅)》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36, 중국어문학회, 2011, 37~62쪽.
-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28쪽.
- 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32, 한

- 국학 중앙연구원, 2009, 129~154쪽.
- 이지영, 「낙천등운의 텍스트 특징과 형성배경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19, 국문학회, 2009, 59~87쪽.
- 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민족문학사연구』, 1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1. 130~153쪽.
- 정인숙, 「〈텐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발달 양상 및 도시생활문화의 탐색」, 『한국어교육학회지』 127호, 한국어교육학회, 2008년, 365~392쪽.
- 천수연, 「‘三言’에 나타난 商人形象 연구」, 수원대학교 중국어 교육 석사논문, 2006, 1~95쪽.
-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07쪽.
- 최승희, 「조선후기 고문서를 통해 본 고리대의 실태」, 『한국문화』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89~127쪽.
- 최태화, 「다메나가 슌스이(爲永春水)의 넌조본(人情本)연구 : 『순쇼쿠우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와 『순쇼쿠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1~72쪽.
-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51~188쪽.
- 하성란,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83쪽.
- 허경진, 「조선후기 한문학에 나타난 상업문화」, 『동방학지』1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173~227쪽.

ABSTRACT

Image of merchant shown on an old novel of late Joseon and its meaning
- Centered on <Boeungiurok>

Tak, Won-jong

The study intended to identify literary image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uch as activation of money economy and commerce in the late Joseon, in addition, to let Boeungiurok establish itself as novel of merchant in Joseon. To this end, the author analyzed images of the merchant shown on <Boeungiurok> which is a long novel written in Korean.

The first image of merchant on <Boeungiurok> is 'running of butcher's shop by ruined Yangban'. The second image of merchant is 'large usury man connected with an official'. The first meaning of merchant image on <Boeungiurok> is that 'appearing of authentic merchant novel-catching of lives of merchant and exploring of ideal merchant image'. Through stories related to butcher's shop or usury, activity of merchant in the midst of daily lives and actual commercial business are vividly described. Furthermore, ethic of merchant or management guideline are disclosed. Although Wi Yeon-cheong is not a merchant, image of merchant with virtue is disclosed through him. This shows that there is an aspect to explore image of desirable merchant. The second meaning is 'setting of new conflict between father and son- conflict in identity between scholar (士) and merchant(商)'. There is conflict between a father and a son - the father shows excessive hatred about reading a book which is a duty of Yangban while the son still emphasizes his class as a scholar. In addition, there is inner conflict of the son - the son has recognition about commercial activity or making money that shows some distance from identity of scholar class.

Key Words novel of merchant, image of merchant, running of butcher's shop, large usury man, conflict in identity

논문투고일 : 2014. 10. 30

심사완료일 : 2014. 11. 21

게재확정일 : 2014. 12. 3

